



미 증시, 파월 발언 경계심리 속 차익실현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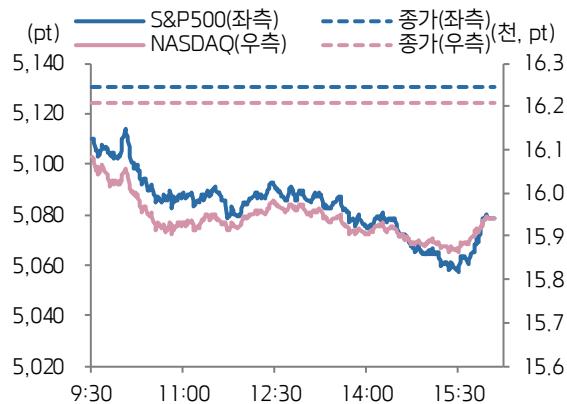
5일(화) 미국 증시는 파월의장 발언을 앞둔 경계심리 유입, 애플, 테슬라 중국 내 판매량 감소 등 개별기업 악재가 하방 압력을 가하며 약세(다우 -1.04%, S&P500 -1.02%, 나스닥 -1.65%). 업종별로 에너지(+0.7%), 필수소비재(+0.3%), 금융(+0.1%) 강세, IT(-2.2%), 부동산(-1.6%), 경기소비재(-1.3%) 약세.

미국 2 월 ISM 서비스업 지수는 52.6(예상 53.0, 전월 53.4) 기록하며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으나 확장 국면 유지. 신규주문 55.0에서 56.1로 상승했으나, 고용 50.5에서 48.0으로 50 하회, 물가지수는 62.0에서 58.6으로 하락. 2 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는 52.3(예상 51.3, 전월 51.3)으로 예상치 상회. 집계측은 노동시장 호조로 제조업 생산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 특히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부문이 지난해 6 월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났다고 언급.

미국 15 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시작. 민주당은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4 개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미국령 사모아에서 코커스를 각각 진행. 또 아이오와주가 우편 투표로 진행한 코커스(당원대회) 결과를 이날 공개. 공화당도 이날 캘리포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13 곳에서 프라이머리를, 알래스카 및 유타 2 곳에서 코커스를 각각 실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오는 7~8 월 전당대회 행사지만 사실상 슈퍼화요일 경선을 거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선 대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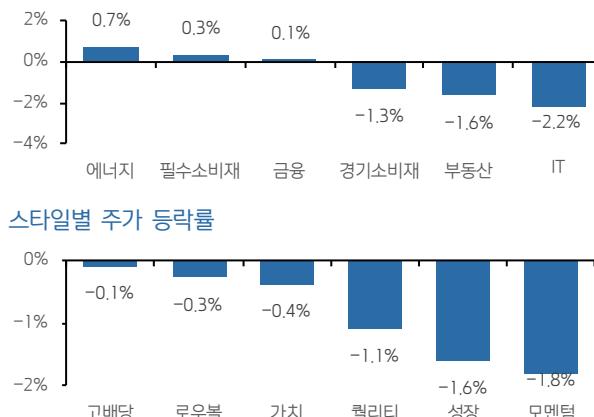
엔비디아(0.86%)와 SMCI(1.53%)는 강세. 애플(-2.84%)은 중국에서의 연초 6 주간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24% 급감했다고 발표, 중국 내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작년 19%에서 15.4%로 하락, 순위도 2 위에서 4 위로 하락하며 이틀연속 주가 약세. 엔비디아에 이어 AMD(-0.11%) 역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맞춰 설계한 중국 수출용 저사양 반도체에 대한 판매 승인을 막았다는 보도에 약세. 테슬라(-3.93%)는 독일 기가팩토리가 정전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 다음 주 초까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1000 대 이상의 차량 완성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49.40	-0.93%	USD/KRW	1,334.49	+0.24%
코스피 200	357.59	-0.97%	달러 지수	103.78	-0.05%
코스닥	866.37	-0.76%	EUR/USD	1.09	-0.01%
코스닥 150	1,416.39	-0.48%	USD/CNH	7.21	+0%
S&P500	5,078.65	-1.02%	USD/JPY	150.06	+0.01%
NASDAQ	15,939.59	-1.65%	채권시장		
다우	38,585.19	-1.04%	국고채 3년	3.352	-0.5bp
VIX	14.46	+7.19%	국고채 10년	3.415	-2bp
러셀 2000	2,053.71	-0.99%	미국 국채 2년	4.558	-4.4bp
필라. 반도체	4,879.83	-2.05%	미국 국채 10년	4.153	-6.1bp
다우 운송	15,626.24	-1.04%	미국 국채 30년	4.292	-6.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893.07	-0.4%	WTI	78.15	-0.75%
MSCI 전세계 지수	767.13	+0.01%	브렌트유	82.06	-0.89%
MSCI DM 지수	3,362.28	-0.05%	금	2141.9	+0.73%
MSCI EM 지수	1,030.39	+0.56%	은	23.76	-0.07%
MSCI 한국 ETF	64.31	-1.97%	구리	384.4	-0.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8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9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4.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나스닥, 비트코인 등 간밤 위험자산 가격 조정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주요 체크 사항

2. 파월 의장의 발언 대기심리가 장중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3. 연이은 개별 악재로 인한 애플과 테슬라 주가 약세에 따른 국내 관련주 수급 변동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조정을 받은 데에는 애플(-2.8%), 테슬라(-3.9%)와 같이 개별 기업 악재 영향도 있겠으나, 최근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따른 과열 우려가 누적된 가운데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둔 경계심리가 차익실현 압력이 확산된 영향도 있다고 판단. 한국시간으로 7 일 00 시 예정된 하원 증언에서 파월 의장은 경기, 인플레이션, 금리 등 통화정책 전반에 걸친 내용을 보고할 예정. 일정부분 3 월 FOMC 프리뷰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주식, 채권, 외환 등 전반적인 자산시장의 참여자들의 관심도 이곳으로 집중될 전망.

일단 2월 중 공개된 의사록을 통해 1월 FOMC를 복기해보면, 연준 위원들은 최근 1년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2%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 또 금융시장 여건이 적정 레벨보다 덜 제약적이게 될 시, 총 수요의 과도한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정체될 수 있다고 진단하는 등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파적인 시그널을 보냈음(5 일 기준 골드만삭스의 금융여건지수는 99.2pt 대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완화적인 수준).

2월 중에도 대부분 연준 인사들이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 “하반기 이후”, “올해 말”, “연내 3회 적절”, “3분기 1회 시행 후 종단”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은 표명했던 상황. 이처럼 FOMC 나 연준 위원 발언이 대체적으로 매파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2 월 이후 AI 주,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위험자산랠리가 출현했으며, 그 과정에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는 점이 연준 입장에서는 3 월 FOMC를 앞두고 고민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

따라서, 이번 하원 증언에서 관전 포인트는 1월 FOMC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의 위험자산 랠리, 1월 CPI 및 PPI 쇼크,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로 매파적일지가 될 것. 이 결과에 따라 숨고르기성 조정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 2 월 이후 좀처럼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걸쳐 변동성 확대시킬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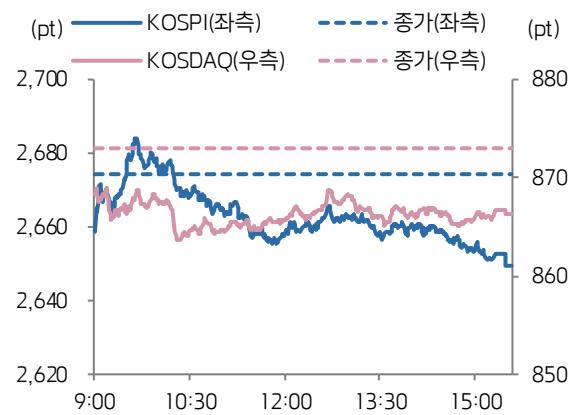
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나타나는 주가 변화는 향후 증시 방향성에 메인 변곡점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실질적인 1~2 차 변곡점은 12 일 CPI 와 21 일 FOMC 를 치르는 과정에서 등장할 것인 만큼, 이번 발언이 증시에 중립 이하의 결과로 끝나더라도 방향성 변화를 고려한 전략 수정은 3 월 FOMC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AI 주 랠리 지속에도, 개별 악재로 인한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요 대장주 약세, 주중 주요 매크로 이벤트 대기심리 등이 저 PBR, 반도체, 2 차전지 등 주요 업종에 걸쳐 차익실현물량을 출회 시키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0.8%).

금일에는 나스닥, 비트코인 등 주요 위험자산군들의 가격 조정, 미국 1 월 ISM 서비스업 PMI 부진(52.6 vs 컨센 53.0),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 경계심리 등이 약세 압력을 가할 전망.

업종 측면에서도 전일과 유사하게, 애플이 연초 이후 중국 내 아이폰 판매감소(-24%YoY)로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나, 테슬라 또한 독일 공장 화재로 생산 중단됐다는 소식에 부진했다는 점은 전일 낙폭이 커던 국내 관련 주들의 “저가매수 vs 추가매도” 대치 국면을 유발하면서 장중 수급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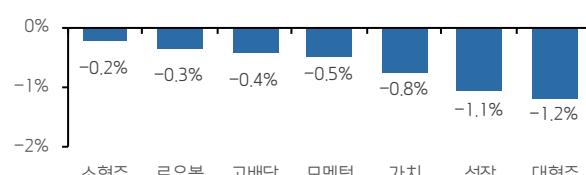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기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